

## 중국 라오닝(遼寧)성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

임 동 훈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서울대 고영근(高永根) 교수와 다녀왔으며, 파견 기간은 7월 16일에서 7월 30일까지 약 보름이었다. 파견자들은 파견 기간 동안 주로 선양(瀋陽)에 머물렀다. 파견자들이 라오닝성에 간 목적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들에게 우리의 어문 규범, 우리말과 글의 역사, 국어 문법의 기초, 언어 예절, 남북한 언어 차이, 우리 문화 등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은 북한의 언어 규범에 익숙해 있는 중국의 동포들에게 우리의 언어 규범을 보급한다는 효과도 아울러 가진다.

수강생은 이봉영(李鳳英) 외 26명이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조선어 교원과 출판인들로서 20대에서 50대 후반까지의 연령에 걸쳐 있었다. 연수 장소는 선양에 있는 省少數民族培訓中心이었으며, 연수 기간은 4일이었다. 파견자는 이 기간 동안 80분 수업을 15회 하고 그 밖에 한 번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연수 기간 외에는 현지 출판사나 조선족 마을을 방문하여 그곳 사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수강생들은 호칭·칭어, 경어법, 전화 예절, 편지 쓰기, 손님 맞이 등에 관한 내용인 “표준 화법” 강의와 남북 언어 차이를 소개한 “남북한 어휘의 비교”, 한국에서 흔히 쓰는 표현을 소개한 “한국어의 기본 단어와 관용 표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나, “외래어 표기법”, “러시아어의 표기 규칙”은 거의 알아 듣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외래어 표기가 바탕하고 있

는 로마자 알파벳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수강생들은 한결같이 외래어 표기법보다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외래어에 대해 조선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선어로 대역한 한국어-조선어 대역 어휘집이 훨씬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 수강생들은 한국의 역사, 지리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가지고 간 강의 교재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 많이 아쉬워했다. 실제로 이들은 전라도가 어디에 있고, 경상도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 밖에 앞으로 파견 나갈 사람은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는 듯했다. 중국의 한국어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일 것이기 때문이다.